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9. 10. 24(목) 15:00

■ 장 소 : 구로구청 3층 창의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15시07분 개의)

○간사 안녕하세요? 구로구의회 의정팀장 안영철입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참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추천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A 위원 송영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그러면 송영덕위원님으로, 또 다른 추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송영덕위원님을 박수로 위원장님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선출되신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후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순서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B위원 여기 안 계시는 분을 해도 되나요?

○간사 관계는 없습니다.

○B위원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성공회대학교 사회정책계 쪽 연구하시는 교수님 계신데 이번에 주제로 그것을 많이 준비하고 가시던데 그 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심사위원 명단에 성공회대 교수님?

○의원담당 오늘 못 나오십니다.

○A위원 그러면 오늘 추천하신 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덕 심사위원회에서 한번 선임하면 활동기간이 2년인 거죠?

○간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회의를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회의가 정상적으로 될 때는 1년에 한 번씩 두 번 하는 건데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분을 부위원장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참석하신 분 중에서 권신윤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동의해 주시면 박수로 부위원장님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일동박수)

○간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출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위원장님 주재 하에 2019년도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부터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세요? 2019년도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맡게 된 위원장 송영덕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성원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성원 보고 하겠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의 출장심사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석한 위원님은 여섯 분으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출장조례 제4조에 따라서 2019년도 구로구의회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1.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의 건

(15시11분)

○위원장 송영덕 그럼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의 간사이신 구의회 의정팀장님께서 국외출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따라서 의원 공무국의 출장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외 출장은 이탈리아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스마트시티 및 복지분야 등 관련 우수사례를 체험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상황에 대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쪽입니다. 출장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장기간은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이고요, 출장지역은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등이며 참여인원은 의장님을 포함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계획서 2쪽입니다. 공식방문기관으로는 로마 노인복지시설과 RSM 교통기관, 볼로냐의 레가코프 협동조합, 밀라노의 스마트시티입니다. 현장시찰 방문지로는 피렌체 국립도서관, 피렌체 카쉬네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부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 연수자 개인별 업무분장 내용입니다. 총 열네 분의 의원님 중에서 의장님은 공무국의 출장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시고 나머지 열세 분에 대해서는 분야별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행하는 직원들의 업무분장 내용입니다.

다음 7쪽 출장에 대한 기대효과입니다.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스마트시티, 협동조합, 도서관, 교통 등을 벤치마킹하여 구로구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구민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물에 대해 집행부에 정책제언을 하고, 이에 대

해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지난 위촉장 수여식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실적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자와 여행사 측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검토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로구의회 조례 중에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발표까지를 인쇄 안 한 것 같은데.

○의원담당 별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별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심사기준을 한 번 참고하시고 배부받은 계획서를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이것을 작성하신 의원님은 어느 분이 작성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원담당 의원님이 단독으로 하신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무국외출장 담당인테 상임위하고 위원회, 최초로 상임위 갈 때부터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컨셉 잡고 여행사 도움받고 그래서 같이 해서 계획서는 제가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장 그것을 주도하신 의원이 있으실까요?

○의원담당 컨셉마다 다른데요. 스마트시티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김희서 위원장님께서 같이 해주셨고요. 물론 김희서 위원장님은 명단에 보시면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 보시면 교통 같은 것은 정대근 부의장님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별로 업무분장을 사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그 다음에 메일로 추가로 요청드렸던 자료가 배부가 안 됐는데요.

○의원담당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뽑았고요.

○위원장 위원님들이 어쨌든 심사하시되는데에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방금 나누어 주신 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외여비 지급표입니다. 저희가 별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른 출장경비가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국외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하실 수 있을까요?

○의원담당 출장경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 규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그리고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항공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급이 되고요. 일비, 식비, 숙박비는 국외여비 기준표에 따라서 국가 및 도시에 따라 등급을 적용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나등급입니다.

○위원장 국외여비 지급표는 이 단위가 달린가요?

○의원담당 달러입니다. 계획표에 보시면 환율이 1유로에 1,314원을 적용을 했고요. 이것은 2019년 10월 18일 하나은행에 적용된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항공운임은 여기 오기 전에 검색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비싸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항공운임 중에 보면 김영렬님하고 원혜진님, 박진혁님이 항공료가 높은데 사유는 뭔가요?

○의원담당 사유는 당초에 계획 자체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상임위로 준비를 했다가 그것이 취소가 되고 전체 의원님이 한 번에 가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항공권 구매하는 일정이 또 늦었고 갈 수 있는 인원도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최초로 한 것이 314만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후에 항공권이 없어서 항공료 나오는 날짜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어쨌든 예약이 늦어서 그렇다는 것이네요?

○의원담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출장여비 내역중에 숙박비와 식비가 수행직원과 그 다음에 의원과 의장, 부의장님 금액이 다르잖아요.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숙박비와 식비까지 달라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담당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국외여비 지급표에 보시면요, 의장하고 부의장님은 4번 별표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군이고요. 의원님들은 제5호 별표 1의 제2호 가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5급 이하는 6번 별표 1에 2호 나목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금 표시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도 다 보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별표 1호 라목에 해당 한다고 했는데 여기 안에서도 등급이 나뉘어지잖아요.

○의원담당 등급은 나라 등급입니다. 이탈리아가 나등급이기 때문에 나등급으로 기준으로 해서.

○C위원 보통 그런데 보통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상급자 기준이 통일하지 않아도?

○의원담당 가능합니다.

○C위원 같은 식당에 가서, 숙소도 가서도 구별 짓는다는 것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의원담당 네. 맞습니다. 가늠은 합니다. 여기 지침에 상급자 등급하고 같이 올릴 수 있는 데요. 전체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C위원 실제적으로 가서는 같이 먹는 거잖아요.

○의원담당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의장님, 부의장님만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의장님, 부의장님이 별표 1에 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역은 나에 해당하니까 그러면 일비가 35달러인데 여기서의 일비의 개념이 뭔가요?

○의원담당 일비는 하루 쓰는 교통비용부터 그 외에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위원장 하루에 쓰는 잡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숙박비 예산이 160불인 거죠?

○의원담당 네, 맞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가, 몇 박이죠?

○의원담당 6박입니다.

○위원장 6박에 125만원 잡혀 있는 거네요?

○위원장 숙박비가 계획서에 나와 있는 체제비 숙박비가 126만원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160불은 총 경비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하루에 160불인가요?

○의원담당 하루입니다. 하루에 160급하기 6일치. 960불

○위원장 960불이면 1,200원 정도 적용한 것인가요?

○의원담당 1,300원입니다.

○위원장 128만원.

○의원담당 126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거의 상한액이 맞겠다고 봐야 되겠네요?

○의원담당 네.

○위원장 그러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130 그러면 7불이 되는 거지만, 의원님이 1인 1실인가요? 2인 1실인가요?

○의원담당 의원님들은 2인 1실로 되어 있고요. 의장님은 1인 1실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2인 1실인데 130얼마면 곱하기 2잖아요. 숙박비가.

○의원담당 할인 적용을 해서 직원가하고 같이 123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의원님들이 2인 1실이면 두 사람이 쓰는 금액이 200만원 돈 되는 거잖아요.

○의원담당 네

○위원장 이 기준에 의하면 맞는 것인가요?

어쨌든 국외여비 지급표는 1인당 숙박비죠? 6박이라는 게 실제 숙박일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의원담당 실제 숙박일입니다.

○위원장 비행기에서 자는 것 빼고, 그러면 계산 좀 해주시죠. 137달러 곱하기 6일을 하면.

○의원담당 의원님들은 123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의원담당 137인데요, 할인 직원하고 똑같이 들어가 가지고요.

○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기준액이 얼마인지를 일단 확인하고 그 이하인지를 보는 겁니다.

○의원담당 137입니다.

○위원장 137에 6이면 822달러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거죠? 아까 환율을 얼마 적용했죠?

○의원담당 1,314원입니다.

○위원장 그러면 108만원, 그러면 상한액에 맞추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의원담당 직원가에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 그러면 1인당 쓸 수 있는 돈이?

○의원담당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식비도 이 기준에 맞추신 것인가요?

○**의원담당** 네,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위원장** 식비도 그러면 의장님 같은 경우에 하루에 78달러?

○**의원담당** 네.

○**위원장** 당연히 심의하면서 경비가 적정한지를 평가해야 되지만 왜 제가 이 경비를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보고 싶었느냐 하면 불명예스럽게 구로구의회가 비용을 부풀려서 해외에 다녀왔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로구의회가 6박 8일간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일정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항공권이 1인당 150, 의원은 163만 6,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기자가 체크를 해보니가 50만원에서 100만원 초반대 가격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이 짜였는지 위원님들과 같이 보고 싶었고요. 다행히 기준에 맞추어서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OC위원** 현장시찰 할 때 관계자들 그쪽 안 나왔죠?

○**여행사**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요, 저는 여행사에서 나온 000입니다. 현장시찰이 현재 잡혀 있는 곳은 총 세 곳이고 공식방문이 다섯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려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선 공식방문으로 들어가는 곳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장 시찰로 들어가는 곳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가 없이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단순 시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피렌체 국립도서관이 현장시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방문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피렌체 국립도서관도 관계자가 나와서 직접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서관이 원래 일반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심사전에 확정받아가시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OC위원** 그전에 제가 해 보면 현장시찰의 경우에 설명이 없고 공식방문인 경우에는 기관에서 브리핑하고 질의응답하는데 그 질의응답 자료 같은 것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의원담당** 사전에 자료 보시면 해당 기관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 자체에 대사관에 알아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만 중점적으로 질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세 개 정도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따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목록들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C위원** 그것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의원담당**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문상 질의응답 자료를 많이 보낸다고 해서 그쪽에서 답변 오는 것은 아닙니다.

○**OC위원** 답변보다 가서 물어보고 부족한 사항은 기록을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원담당** 네, 맞습니다.

○**OA위원**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단 일정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간 배정에 있어서 어떤 날은 6시까지 잡혀 있고요. 어떤 날은 14시까지로 되어 있고 어떤 날은 17시이고 다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11월 6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2시까지 하고 이후에 그냥 현지

간담회라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배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일정이 큰 카테고리만 있고 촘촘하게 안 되어 있어서 일정표만 딱 보면 놀러가는 거 아니냐? 구경을 위해서 가는 건데 일정표만 보면 그런 게 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일정에 대한 촘촘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몇 군데를 찾아봤더니, 저는 평생교육하고 주민자치 쪽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일단 피렌체 국립도서관이 아까 현장시찰에서 공식방문을 바뀌었다고 했는데 “여기를 왜 가지? 도서관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목적에 목적에 구로구의 100호 도서관 향후 4개의 도서관 건립, 써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도서관을 방문해 봤지만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야지만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질문할 수 있고 돌아와서 현장하고 구로구 도서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데 과연 피렌체 국립도서관을 가서 구로구하고 어떤 연계를 위해서 보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볼로냐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레가코프 협동조합 연합조직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보고 오는 것이 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인가? 그런 지역경제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구로구에 있는 많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연합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가서 보고 와서 실제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야지만 실제 갔다 오신 다음에 그 결과를 구청하고 연결하고 나중에 구청에다 정책제안을 하실 때도 명확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추상적으로 로마에 뭐 도서관, 좋은데 막상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뭘 보고 와야지 하고 아주 명료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사실 명료하게 가도 못 보는 것이 많더라고요. 막상 가면, 그런데 너무나 추상적으로 뭉뚱그려 가면 갔다 와서 여행 간 느낌밖에 안 남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런 구체화가 내용 속에 실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회의 끝나고 그런 것들을 구체화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시기 전에 정교하게 하셔서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가지고 역할들을 가지고 가셔야지만 성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의원담당**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공식방문했을 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자체가 부족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의응답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요. 협동조합은 저희가 준비를 했었을 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절반 이상이 폐업이나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중단 이유를 보니까 한 24.4%가 수익모델이 미비했고 사업 운용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향후 협동조합이 추가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관내에 167개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자리지원과에 협동조합 부서들이 생긴지 5년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양적으로는 많이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나 다른 외국에 비해서 질적이 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그런 쪽으로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응답 자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OA위원 아까 167개 협동조합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나요?

O의원담당 일반이 144개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19개, 생협이 4개가 있습니다. 기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말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29개가 있는데요. 인증이 19개, 그리고 지역형 6개, 구체형이 4개 자활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이 15개 정도 있어서 전체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은 218개 그렇게 있습니다.

OA위원 예를 들어서 보고 왔을 때 그런 범주의 속성에 따라서 질문하거나 그 부분도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질문을 하고 정보를 들어오실 지를 조금더 공부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OB위원 저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방문하는 데는 볼로나 레가코프를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를 기관방문 하나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제를 너무 크게 잡을 필요는 없다,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가서야 하고 또 반면에 의원님들이 그 주제에 대한 숙지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페이지 상으로 좋은 주제를 다 잡을 필요는 없다, 의원님들 개개인의 과제가 있는 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 구매촉진 활성화, 통합지원센터 운영 방안 모색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범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제가 하나여도 괜찮으니 의원님들이 깊이 있게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점이 의원님들이 사전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직원 분들만 스터디 하고 끝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사전에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O의원담당 다음 주에 준비할 예정에 있고요. 그 전에 위원회별로 준비를 했을 때, 이런 것 이런 것 보자, 보고 와서 그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구의 정책적인 사업들과 연관성 있는 것이 뭐냐, 어떤 것을 개선을 할까, 그 개선방향 쪽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광범위한 것은 있습니다.

OB위원 그런 부족함을 보완할 방법을 지난번에 잠깐 설명하셨는데 의원 간담회가 1, 2, 3차까지 있나요?

O의원담당 네.

OB위원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관방문을 소관만 나누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저도 사전에 몰랐는데 직원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 자리에서도 현장시찰의 의미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간담회가 아니라 각각의 주제를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OC위원 그것 관련해서요, 출장동기 및 내용에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선진국의 발전된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탈리아의 정책과 구로구를 서로 비교분석해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치 선진국의 발전된 정책이면 우리는 후진국이고 이탈리아는 선진국 같은 그런 느

낌이 드네요.

O의원담당 맞습니다. 밀라노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스마트시티가 몇 개 나라가 있는데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밀라노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래서 밀라노시티 공무원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밀라노에 관련된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을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중장기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쪽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올까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OC위원 스마트도시 같으면 우리가 전체 스마트도시 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보고 와서 그것을 이탈리아하고 비교분석해서 주제를 하나씩 위원님들은 아까 질문할 내용들이라기 보다는 내가 꼭 알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씩 위원님들이 알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OA위원 저도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구체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업무내용이 각 1인 1주제로 보고 오시는 것은 보니까 무슨 연구프로젝트도 이렇게 못 하거든요. 일단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큰 주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정말 보고 올 것 하나는 큰 주제하에 소주제로 몇 가지 질문하고 이 정도만 해도 간소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딱 보시면 의원님들이 기절하실 것 같아요.

O의원담당 사전에 보여드리기는 했는데요.

OA위원 아마 이것 보기만 하시고 이것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OD위원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 장소를 구로구의회가 방문한 적은 없습니까?

O의원담당 네. 이탈리아는 처음입니다.

OD위원 6일 중에 공식방문이 있는 날은 나흘이네요. 현장시찰이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은 왜 가요?

O의원담당 당초에는 밀라노 스마트시티 관련된 현장시찰을 가려고 했는데요. 밀라노 스마트시티를 해당 기관하고 공문 주고 받으면서 요청을 한 게 일정이 11월 9일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주말이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금요일로 밀라노 공식방문 요청을 넣었고요. 그래서 한 가지씩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밀라노는 저희는 큰 도시인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돔야구장도 있고 해서 현장으로 봐두면 어떤가, 축구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저희는 사실 고척돔야구장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것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장시찰로 보면 어떤가 해서 넣었습니다.

OB위원 현장시찰로 갈 때는 거기에 관계자가 없는 거죠?

O의원담당 네.

OB위원 그러면 가서 축구장 측 보고 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OB위원 관광인데요.

OB위원 그런데 관광도 관광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일정상으로 보면 갑자기 축구장이 나오니까 만약에 대외적으로 일정을 공개하라고 했을 때 구민들이 봤을 때 “이게 뭐지? 왜 굳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OB위원 심사기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6일 과연 최상의 기간이 맞는지 의구심이 좀 있어요.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가 2년인데 임기 기간 동안에 구로구의회가 혁신적으로 공무출장에서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까 나누어드린 공무국의 출장 조례를 보시면 출장계획 9조에 보시면 출국 30전까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국 30일 전에 계획서를 만들어 내면 비행기표 예매를 하기에 부족한 시간이고 이렇게 심의해 가지고 계획이 잘못 됐으니까 수정하든가 수정 안 할 거면 가지 말라든가 이런 심의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7월에 개정을 했는데도 이 모양으로 개정을 해냈다는 것이 안타깝죠. 실제적인 계획을 짜고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려면 최소한 출국 90일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그 전에 출국 120일, 90일 길수록 더 좋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심의위원회도 심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정을 바꾸고 지금같이 불필요하게 축구장 가느라고 하루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숙박비 쓰면서, 뭘가 일정을 보면 이것을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일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이 멀리 나간 김에 왕복 비행기표 들어가시고 관광을 가듯이 일단 비행기표 끊어 가지고 멀리 갔으니까 최대한 오래 있자든가 최대한 볼 수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오자든가 이런 식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보는 그런 일정과 계획을 잡으려면 일단 조례부터 계획을 출국 90일, 120일전에 계획을 짜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저는 계속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계획을 바꾸고 일정을 바꾸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다 예약 해놓고 “승인 안 해주시면 취소해 가지고 취소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행사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국의출장을 가려고 하다가 단체로 가다 보니까 기존 출장 때 있었던 사전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의원담당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출국하시기 전에 계획을 잡아보셨습니까?

○의원담당 네,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의원담당 화요일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다음주에?

○의원담당 일단 심의 통과되면.

○위원장 어떤 것을 주제로 할 생각입니까?

○의원담당 공무국의출장 전반적인 내용 하고요. 해당 기관이나 출장내역 그리고 업무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 관련된 것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그것은 출장계획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브리핑하겠다는 것이지 의원들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간다든지, 도서관에 무엇을 보고 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전문가가 “로마의 도서관은 유명한 것이 무엇이니까 거기 가서 이것을 꼭 보십시오. 라고 전문가를, 스마트시티 지금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던 말이죠.

○의원담당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30일이라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짧더라고요. 행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부터는 사전에 훨씬 더, 저도 처음으로 이것을 해 봤는데 45일, 50일 가지고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기가. 그래서 내년에는 더 앞당겨서 사전보고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분야별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도 사전에 잡고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A위원 여행사추에, 일정상 보완할 것이 없는지, 일요일 마지막날 건에 대한 것은.

○여행사 밀라노에서 축제를 많이 안 봤는데 축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밀라노 산시로 축구장을 추천을 했습니다. 일부러. 이유가 최근에 구로고척돔 경기장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그 지역에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더 고립되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2주전, 2주전까지도 기사 계속 봐 왔었고 그리고 밀라노 산시로 축구장 같은 경우는 외국에 축구장 같은 경우 그 안에 여러 가지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니폼이라든지 부가적인 식당, 레스토랑 그런 것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안 열리는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가고 지역주민들도 가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스페인에 갔을 때 바르셀로나 축구경기장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많은 생각을 갖게 돼 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할까,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왜 못할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러 추천했던 곳이고 여기를 추천한 이유가 세계적으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밀라노 하면 축구, 축구 하면 축구경기장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큰 밀라노의 경제를 많이 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E위원 구로고척돔은 운영 자체가 서울시 하는 거죠?

○의원담당 네,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운영합니다.

○A위원 문제는 방향 자체를 그렇게 잡지 않으셨던 것 같고 그냥 하나 비어버린 일정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서 기왕이면 아직 위원님들이 공부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어서

여기 역할 맡으신 분 중에 변경을 해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작성하고 보고 오실 만한 사실, 영국의 맨체스터인가요? 거기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거든요. 여기도 그런?

○**여행사**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하고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서초구의회가 방문했거든요.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활성화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여서 개인적으로 팬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OD위원** 편안한 질문인데 대한항공 일정이 이탈리아와 우리나라 비행기 스케줄이 어떻습니까? 하필 이때 돌아와야 되는 이 일정으로밖에 없나요? 아니면?

○**여행사** 밀라노가 데일리가 아닙니다.

○**OD위원** 일요일날 출발할 수밖에 없다?

○**OA위원** 11월 10일 일요일날 비행기를 몇 시에 타나요? 공항으로 가는 것이 17시에 공항으로 출발하는 것인가요?

○**여행사** 현지에서 움직여야 되는 시간은 점심 먹고 2시에서 3시 정도는 출발해야 됩니다.

○**OA위원** 그러면 축구장을 가는 시간은 10시부터?

○**여행사** 1시간 정도 되는데 공식방문은 아니지만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공식가이드 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까지 락카툼까지 짝 구경하고 보실 수 있게끔, 안에 경기장까지 볼 수 있게끔 준비가 되는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준비를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아니어서 심사 때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몰라서 그것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아직 일주일 이상 남아 있어서 스케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OA위원** 그래서 출발시간이 정확히 언제라는 거예요?

○**여행사** 20시 5분에 비행기는 출발을 하는데 세 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고 1시간 전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 출발시간은 3시반에서 4시 정도 출발해야 됩니다.

○**OD위원** 그러면 토요일에는 비행기가 없어요?

○**여행사** 데일리 스케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바꿀 수도 없어요.

○**OB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정은 간단한테 불필요하게 시간이 그래요.

○**위원장** 일단 저희는 이 계획을 승인할지 아니면 승인하지 말지 그것을 심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회의 시작할지 1시간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출장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판단하시고 항목별로 결론을 내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 의견 있으신가요?

○**OB위원** 사회적경제하고 스마트도시하고 크게 비중을 두고 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도서관 방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도서관 방문이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구청장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구로구의 어떤 상황과 대비해서 그쪽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시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의원담당** 구로구 도서관 자체가 위탁을 다 주는 상황이고 규모 있는 도서관이 그렇게 없습니다. 고척근린공원에 있는 도서관은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고요. 향후 4개 정도 규모가 있는 도서관이 들어오는데 물론 그것도 한 군데는 서울시에서 직영을 할 것 같고요.

평생교육관 쪽에 있는 것인데요. 나머지가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나 이용자들과 시간이 좀 안 맞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10시 까지도 하고 싶고 그런데 끝나는 시간이 금요일도 일찍 끝나고 또 월요일 같은 경우도 보통 나머지는 9시에 문을 여는데 월요일은 12시 이렇게 여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외국은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저는 사실은 도서관에 관해서는 해외사례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의 문제는 도서관의 개수를 늘리는 데 구청장님이 역점으로 두고 계시지, 그 도서관에 도서관장을 전문 사서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시더라고요. 걸의를 했더니 도서관 관장은 사서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실제로 인사 보는 차원에서 도서관 관장이 선임된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구로구의 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지 뭐 해외 나가서 본다고 그래서 뭘 배워 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담당** 도서관 사서 문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서관마다 다 사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상호대차나 이런 것 위주로만 하고 기타 프로그램이나 다른 쪽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려고 합니다.

○**OA위원** 저는 일단 도서관 관련해서 요즘에는 지역마다, 지역마을도서관이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많이 하기 때문에 구청에 사서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계시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피렌체 국립도서관이라든가 구로구 도서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는 하지만 저도 계속 보면서 왜 국립도서관을 가가지고 뭘 더 보고 오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과 구로구 도서관하고 상황하고 다른데, 유명한 도서관이기는 하더라고요. 자료 찾아보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오래된 도서관에 가서 구로구는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오려고 하지? 그냥 도서관의 전경 보고 오나? 장서? 도서관에 꽂히는 책의 의미는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피렌체쪽에 도서관에 갈까, 가장 궁금했었던 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피렌체 국립도서관이다.

○**여행사** 시설은 한국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요. 한국만큼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IT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찾고 그런 것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와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방문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상징성도 많이 있거든요. 도서관이라는 것도 있지만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꼭 도서관으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 가지고 그냥 배울 것은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쪽에서 “어, 한국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곳에서 우리가 기관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여성 관련해서 여성 정책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 그것을 배우러 캐나다에서 거꾸로 왔습니다. 방문한 이후에, 그러면 교류적인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그런 것 때문에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기관방문 수배를 진행했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선진국의 발전된 정책이라든가 그 기관방문도 마찬가지로 외국 가면 역으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하고 우리쪽을 정확히 알고 그쪽도 알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해 가지고 가면 그것이 바람직하고, 잠재적으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OB위원 사실 제가 도서관 얘기를 꺼낸 것은 전반적으로 계층별로 봤을 때 아동청소년 분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볼 수 있는 것이 도서관이겠다 싶어서 도서관을 담당하시는 의원님 같은 경우 가서서 그런 분야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00개나 도서관이지만 들여다 보면 작은도서관이 많고 그 분들은 거의 아동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보려면 지역의 현황에 맞는 주제를 가서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O위원장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셨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기준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용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미처 물어보지 못한 부분들의 항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해서 하나씩 예, 아니오로 각자 위원님들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종합적으로 다시 각 항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몇 개의 항목에서 적합을 받았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공무국의출장 심사기준표 체크)

(별표 공무국의출장 심사기준 끝에 실음)

O위원장 그러면 심사기준에 맞추어서 쪽 한 번 봤고요. 저희가 봤던 기준 이외에 아직까지 설명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A위원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O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항목이 크게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6개 항목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항목이 있고 핵심적이지 않은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단순항목별 적합성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출장의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한번 위원님들이 이 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OA위원 일단 다 계획된 거니까 출장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OK를 하고요. 아까 논의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준비하시고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OD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될 줄 모르고, 마지막 의견 어떻게 수합하실 것인지?

OA위원 이것을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내는 것은 아니죠?

O간사 의견을 모아주셔서 결정만 해주시고 의결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O위원장 그러면 한 10분 정도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OD위원 제가 4시 반 수업이라서요.

OA위원 의견을 내시고 가시는 걸로.

OA위원 네. 그러면 승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위원 퇴장)

O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한 분씩 의견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사항이라든가 종합적인 의견을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진이 위원님!

OA위원 저는 일단 승인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상이나 일정상 보완하셔서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 갔다 오셨으면 좋겠고 향후계획에서 실적보고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시면서 갔다 오셔서 너무 긴 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안드렸습니다. 저는 승인합니다.

O위원장 000위원님 말씀하시죠.

OE위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상 세분화 하는 부분이고 정확히 어떤 곳들이 이 출장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너무 많은 것들을 대상으로 배워려고 하지 마시고 몇 가지 꼭 필요한 부분을 정해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하고 그 계획들이 다시 한 번 수정이 되면 거기에 피드백을 하시면 좋겠고.

O위원장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피드백할 시간적인 여유나 절차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완결된 계획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킬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O간사 없지는 않습니다.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O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어떤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이 출발하기 전까지 준비가 안 되면 승인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부 승인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O간사 심사 기간이 촉박해 가지고 이런 일정이 됐고 전체적인 일정이 딜레이 되다 보니 오늘 이 날짜도 사실상 부담을 안고 회의를 하는 것이지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기적으로 아까 조례상의 문제도 지적을 해주시고 굉장히 많은 개선해야 될 점은 많지만 출장계획의 모순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인정하고 다음 출장부터는 오늘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개선해야 할 사항 많이 해주셨는데 가급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하고, 개선할 필요

성을 절실히 느끼니까 그 점에 역점을 두고 그 다음 출장계획부터는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는 가급적 시기적인 문제는 있지만 좋은 뜻으로 우리가 가서 많은 것을 배워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E위원 저도 일정 다시 잘 수정해 가지고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과보고하고 그 다음에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면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승인을 못할 수 있다는, 저는 모범적인 사례로 잘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그 다음에 000 위원님!

○변용주위원 의원님들은 가시기는 하겠지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많이 배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싶은 것 배워 오시면 될 것 같고, 품위유지하셔서 원만하게 잘 다녀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OC위원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승인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준비를 더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변하셔야 되고 이 주제 토론 이런 것은 다 본인들이 공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전달이 될지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준비한 안은 승인을 하지만 전달하실 때는 의원님들이 더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담당 말씀하셨던 세미나 같은 경우 주제 잡고 토론회 하고 세미나 하고 이런 식으로 향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OB위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실적보고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가신 위원님도 있고.

○의원담당 결과 보고 자체를 가지고 의견 나왔던 것을 집행부에다 제안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것도 관리를 할 생각이 있고요.

OB위원 저는 대주민보고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민이라고 해서 몇 백 명 모으자,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관련된 사회경제면 관련된 분이 오시거나 대표자 몇 분이라도 그런 식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보고회면 의원님들이 다음 연수를 준비할 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형식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담당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공무출장심의위원회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고 이번 출장계획이 보다 더 나은 계획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위원회별로 가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틀어졌다는 이유로 기존보다 하나도 나올 게 없는 그런 계획, 오히려 기존보다 못한 계획이 만들어졌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제가 비판을 했던 출장도 사전에 의원들이 세미나라도 하고 출장을 갔는데도 결과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세미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행인원이 너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많은 수행인원이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수행인원의 대부분이 직원들이 해외, 의원들과 같이 나가서 업무분야에 관해서 뭔가 경험을 쌓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홍보팀이라든가, 사진을 찍거나 기록으로 남겨서 홍보하기 위한 직원이 아닌가 판단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일정도 제가 다른 지역의 출장계획을 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도서관 똑같이 들어가 있고 유명한 체육시설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바줄만한 데 한 군데 끼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여기에 피렌체 과연 도서관을 보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관광지 지이기 때문에 가는 것인지 사실은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이탈리아 관광지 다니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경각심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의원님들한테 경각심을 드리려면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든가 아니면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아까 권신운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다녀와서는 그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왔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겠다, 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례에 적용하고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지를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례는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출장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많이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구로구의회가 만약에 보고와 사후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나쁠 때는 구민의 세금으로 가는 여행경비를 다시 반납하는 그런 벌칙규정까지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정말 본인들이 필요한 출장이 아니면 감히 업무를 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출장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주셨지만 저는 이 출장계획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어쨌든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선택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든가 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부 승인을 한다든가 세 가지 선택안이 있을 것 같은데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물어봐도 될까요?

OB위원 찬반만 하면 의견이 좀 전달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동의를 하신 거면 민과 함께하는 실적보고회를 조건으로 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조례 개정까지 넣는 것이 어떨까요?

OD위원 조례 개정을 넣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OB위원 조례는 과제인 것 같고요.

○위원장 조례를 당장 개정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저희가 임기가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죠. 000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E위원 같은 의견이고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결과보고회 같은 것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다음 심의위원회에는 얘기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게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바뀌셨으면 좋겠고, 저는 승인으로 하겠습니다.

O위원장 단순승인인가요? 조건부 승인인가요?

OE위원 조건부라는 것은 결과보고회이나 이런 것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O위원장 그 조건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결과보고회만 조건으로 넣는다는 말씀인가요?

OE위원 그거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수행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배우고 해야지 의원님들을 수행하고 사진 찍고 하는 문제들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OB위원 조례는 최종한테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까 제출일자 말씀하신 것 같고.

O위원장 제출일자를 앞으로 더 당겨져야 되고요. 서울시 조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전에 세미나가 들어가 있다든가 다른 구나 시의 사례를 보고 더 이 공무원출장의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OB위원 제가 선뜻 그것을 조건으로 말씀하신대로 하자고 하기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조례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금 분명한 다음에 저희가 조건을 제시했으면 싶어서.

O구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조례는 우리가 이번에 추진을 시간을 짧은 시간을 갖다 보니까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겹쳐서 받아들이고요. 내년 할 때는 보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례 개정 문제는 손 볼 것은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의원님들의 뜻도 있어요. 어차피 거기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을 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개정 조건이라고 붙이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건의를 해주시면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O위원장 다음, 뭐 내년이요?

O구의회사무국장 간담회 식으로 모여서 보고 드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OA위원 이번에 다음주 화요일날 세미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구민과 함께 하는 성과보고회 이것만 조건으로 걸고 조례 개정안이나 오늘 검토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다, 건의사항으로 해서 꼭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O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날 다 보고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당 되는 주민들 있잖아요. 함께 하시는 것도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OA위원 실적성과보고회는 지난번 사전 모임 때 저희가 얘기한 자리에서 아마 해서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위원장 그러면 개인 의견 말씀 들었고 결론 내야 되니까요. 다수의 위원께서 조건부 승인을 하시되 그 조건은 주민과 함께 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할 것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위원회 이름으로 구로구의회에 공무원출장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오늘 나왔던 의견을 정리해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동의해 주신다면 올해처럼 계획을 세우고 부실하게 준비를 해서는 다음 출장은 승인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완곡히 담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1분 산회)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